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안동 독립운동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추강 김지섭
수상내역	초중고 부 대상
작가	길원여고 2학년 1반
소재	김지섭
적용 콘텐츠	연극
기획의도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찾아 기리고자 하던 중 교과서에서 추강 김지섭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기획함

추강 김지섭

덕수궁(1910년 8월 22일)

일본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회의장에 을사오적이 있고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책상을 두고 마주보고 있다.

데라우치 : (신사적인 듯 하지만 야비한 목소리로) 총리대신, 16일에 합병조약안을 받으셨소?

이완용 : (비위를 맞추려고 웃으며) 네, 통감. 헌데, 왜 그리 늦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통감께서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리시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완용의 말이 우습다는 듯 데라우치는 큰 소리를 내며 웃는다. 이완용은 잠시 인상을 찡그렸다가 데라우치의 눈치를 보고는 어색한 미소를 띠우고, 뒤에 서 있던 을사오적은 어색하게 소리를 내며 데라우치를 따라 웃는다.

데라우치 : (웃음을 참으며 헛기침 두 번을 하고) 그렇다면 어서 이 조약에 날인하십시오. 이 조약이 체결된 뒤에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께 넘겨줘야 하오.

이완용 : (미소를 지으며)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 일본제국의 천황폐하께서 대한제국을 통치해주신다는 것은 저희의 영광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럼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무대에서 나간다. 다 나간 것을 보고 데라우치가 일어서서 무대 앞으로 나온다.

데라우치 : (호탕하게 웃으며) 드디어 조선을 손 안에 넣었구나. 우리 대 일본제국이 조선을 넘어 대륙까지 나아갈 날이 머지않았다.

(웃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며 생각하다가 옆에 서 있는 일본군에게) 조약은 체결됐지만 조센징들의 반항이 거셀 것이니 당분간 발표는 유보한다! 또한 조선의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헌병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라.

일본군 : (고개를 숙이며) 네, 통감.

한 남자가 짐을 들고 무대에 들어선다. 낡은 한복을 입은 몇 사람이 나와서 맞이한다.

권석희 : (김지섭의 손에 들려 있는 짐을 하나 이어받으며) 어서 오세요, 여보. 오신다는 말씀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지섭 : (권석희의 두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듯) 미안하오. 모든 것을 사직하고 돌아온 나를 이해해 주오. 나라가 타국에 삼켜졌는데 편히 앉아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소. 부인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소.

권석희는 김지섭을 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인다. 권석희와 마중 나온 무리가 무대 밖으로 나가면 남자 세 명이 김지섭을 향해 달려 나온다.

김원봉 : (김지섭을 보며 반갑다는 듯) 추장 형님, 정말 고향으로 내려오셨군요.

김시현 : (김원봉의 말을 이어받아) 추장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곽재기 :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슴 아파 말을 하기 싫지만... 지난 8월에 일제와의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모여 있던 네 사람은 각자 생각에 빠진 듯 얼굴을 찡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김지섭이 세 사람을 보며 말을 꺼낸다.

김지섭 : (세 사람을 보며 쓴 웃음을 짓고) 아라사와 일본이 전쟁을 한 이후 조약이 하나하나 체결될 때부터 대한제국은 썩은 동아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였네. 일제가 많이 참았다면 많이 참았지. 부정하고 있긴 했으나 모두들 은연중에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네.

김시현 :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슬픈 표정으로) 허나... 막상 이런 날이 오니 자꾸만 부정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원봉 : (김시현의 팔을 꼭 잡으며) 무슨 그런 약한 소리요! 난 일본, 그 놈들을 싸그리 쓸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 일본 밑에 기는 친일파 놈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 (손을 들어 보며) 그들 모두를 이 내 손으로 없앨 것입니다.

김원봉이 들었던 손을 꼭 쥐며 부르르 떤다. 곽재기가 김원봉의 손을 감싼다.

곽재기 : (손을 감싸 느슨하게 하며) 여기 있는 분들과 이천만 동포들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허나 그리 막연하게 흥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김지섭 : 곽재기의 말이 맞네. 앞으로, 다가올 조국 독립을 위해서 논해보도록 하지.

네 사람은 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무대 밖으로 나간다. 이들이 무대 밖으로 나가고 한참 후,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있다. 나갔던 김지섭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면 앞을 보고 있던 남자가 김지섭을 향해 돌아선다.

김지섭 : (반가워하며) 형!

반가워하는 김지섭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살짝 올리면 김지섭이 와서 살짝 안는다.

김형섭 : (살짝 웃으며 농담하듯)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넌 여전하구나, 지섭아.

반가운 표정이었던 김지섭은 김형섭의 몸을 살피며 걱정하는 표정을 한다.

김지섭 : (김형섭의 몸을 살피고 나서 팔을 잡고) 형,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처음 국권 회복단 사건에 연루돼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김형섭 :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걱정스럽게)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한숨 쉬며) 이리 걱정만 끼쳐드리는 게 불효인지 알면서도 나라 생각만 하면 가만있을 수가 없구나.

김지섭 :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장난스레) 형!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 우리가 놀고 먹고 있으면 나가서 싸우라고 총칼을 쥐어주실 분이tu. 난 조국독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살아.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그나저나, 형무소 안에서는 어땠어? 일본 헌병들이 험하게 굴었지?

김형섭 : (형무소 생활을 생각하는 듯 시무룩하게) 나라가 없는 설움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놈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조센징 소리, 우리가 독립하는 날 그 말을 하는 주둥아리들을 모두들 뭉개 버릴 거야.

김지섭 : (김형섭의 손목을 꼭 잡으며) 우리 형제, 조국 독립을 위해 쓰이는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칼을 닦으며 때를 기다리자.

의지를 새롭게 다진 형제가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잠시 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무대 위로 올라오며 만세를 외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일본 헌병들이 총을 들고 쫓아온다.

사람들 : (태극기를 들고 무대를 돌아다니며) 대한독립만세~ 일본 놈들은 이 땅에서 물러나라! 와~!!!!!!

무대 한편에 올라선 일본 헌병들이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조준을 하고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 총에 맞은 사람들마저도 계속해서 총 맞은 부분을 감싸고 계속 해서 만세를 외치자, 일본군 장교가 칼을 들고 사람들을 벤다.

일본군 장교 : (칼을 들고 위압적으로) 조센징들! 거룩하신 천황폐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영광인 줄 모르고 이렇게 설치고 있다니! 당장 해산하라!

칼을 휘두르는 일본군 장교에게 쫓겨 사람들은 흩어지며 무대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이 내려간 쪽의 반대쪽으로 김지섭과 김형섭이 사방을 살피면서 들어온다.

김지섭 : (일본군들이 있는지 살피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대 밖을 향해) 대구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두들 힘을 합해 일제를 몰아냅시다!

무대 밖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만세를 부른다.

사람들 : (태극기를 들고 무대를 돌아다니며) 대한독립만세~ 일본 놈들은 이 땅에서 물러나라!
대한독립만세~대한독립, 만세!!!

김지섭은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 묻혔다.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사이로 일본 헌병들이 들어서서 천장을 향해 총을 쏘며 사람들을 위협한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헌병들도 그들을 뒤쫓아 나간다. 시간이 지난 후에 얼굴과 몸 여기저기 상처가 생긴 김지섭이 무대로 나온다.

김지섭 :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기미독립운동이 허무하게 끝난 다음 일제가 기만적 통치행위가 행해지니, 경술국치 이후 10년을 참았으나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은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만주에서 동포들이 단체를 만들어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니 나 혼자서라도 중국으로 가서 그 동포들과 합쳐야겠어.

결의를 다진 김지섭이 무대 밖으로 나간다.

수염이 조금 더 긴 김지섭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 힘이 조금 빠진 듯 몸이 축 처져 있다. 그 때 무대 위에 두 남자가 눈에 보인다. 김지섭은 그 남자를 보고 눈이 동그아진다.

김지섭 : (김원봉을 안으며) 약산, 이게 몇 년 만인가! 정말 반갑네. (김시현을 보며) 아 니, 이것은 또 누구인가! 하구가 아닌가!

김원봉 : (웃으며)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추장 형님.

김시현 : (고개를 숙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한 동안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반갑다는 표정을 짓는다.

김지섭 : (고개를 끄덕이며) 약산이 의열 단체를 만들어 일본에 맞선다는 말은 많이 들 었네.

김원봉 : (허공을 보며 눈을 빛내고) 10년 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손으로 일본 놈들을 싸그리 쓸어버린다고. 지금 그 꿈을 하나하나 이뤄내려 하고 있습 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감회에 빠져 한 동안 말이 없다.

김시현 : (김지섭의 팔을 잡고) 형님, 저희들이 형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지섭 : (뜸 들이는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며 궁금하다는 듯) 그 이유가 무엇인데 이리 뜸을 들이는가?

김원봉 : (이를 앙 다물고) 형님, 저희 의열단에 가입하시어 힘을 보태주십시오. 형님께 서 만주로 망명하였으나 상해, 시베리아 등지를 돌아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 었습니다.

형님께서 의열단에 가입하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힘을 청하려 이리 달려 왔습니다.

김지섭 : (눈썹을 찡그리며 걱정스럽게) 나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지 확신은 가지 않지만... 의열단에 입단하게 되면 나의 목숨을 바쳐 열심히 임할 것이네.

김원봉 : (김지섭의 두 손을 잡고) 형님은 의열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면 일본을 몰아내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세 남자가 어딘가로 나아가는 듯 한 자세로 무대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김원봉 이 옆에 어떤 두 남자를 거느리고 무대 위로 올라와서는 지도 한 장을 들고 무언

가를 상의한다. 김지섭이 또 다른 두 남자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온다.

김지섭 : (침을 한 번 삼키고 김원봉을 보며) 약산, 무슨 일로 나와 이들을 보자 하였는가?

김원봉 : (보고 있던 지도를 놓으며) 추장 형님, 그리고 유석현, 윤병구. 여러분들께서 경성으로 가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김지섭 : (놀라며) 경성이라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들이 경성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김원봉이 지도를 펼치면 김원봉의 옆에 있던 두 남자가 들어준다. 김원봉이 지도를 보며 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

김원봉 : (지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쪽, 이쪽으로 가셔서... 경성으로 들어간 후에... 군자금 모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면 하구께서 국내로 들어가 합칠 것입니다. 군자금 모금의 다음 일은 하구 형님 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섭 : 알겠네. 내 모금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네. (유석현과 윤병구를 보며) 준비를 하러 가지.

유석현, 윤병구 : (고개를 숙이며) 네, 추장 선생.

옷이 만신창이가 된 김지섭이 무대 위로 지친 듯 걸어 올라온다.

김지섭 : (위를 바라보며) 모금활동도 실패하고 난 뒤, 총독부의 판사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으니... 내가 단원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그래도 하구를 통해 새로운 밑지를 내린다 하니... (주먹을 불끈 쥐고) 이번 계획만은 기필코 성공하리라!

이 때, 세 남자가 무언가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사방을 살피며 무대 위로 올라온다. 김지섭은 이들을 보며 또한 주위를 살피며 이들에게 다가간다.

김지섭 : 하구! 드디어 왔군 그래.

김시현 : (상자를 들고 김지섭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추장 형님, 약산이 요인암살

지령을 내리며 공작금과 무기 등을 주며 보냈습니다.

김지섭 : (상자를 만지며) 이 안에는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가?

유석현 : 폭탄... 36개가 들어있습니다.

김지섭 : (놀라며) 아니, 상해에서부터 국내로 반입하기가 몹시 힘들었을 것인데...

황옥 : (자랑스럽게 가슴을 한 번 치고) 제가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의 폭탄출처를 수사한다는 구실로 개성경찰서장 하시모토까지 대동하고 수하물로 위장한 폭탄과 권총을 국경 부근까지 옮겼습니다.

유석현 : 일본인 서장은 폭탄인 줄을 까맣게 모르고 이 짐을 나르는데 한몫 거들었죠. 그리고 국경수비대를 통과할 때 하구께서 일본 놈들을 피어내서 인력거에 폭탄을 싣고 왔습니다.

김시현 : (호탕하게 웃으며) 국경수비대가 우리에게 깃듯이 거수경례까지 붙인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짓궂게) 형님께서 보셨다면 그들을 보며 배꼽이 빠져라 웃으셨을 지도 모릅니다.

네 사람이 한꺼번에 웃는다.

김지섭 : (웃음을 멈추며) 약산이 우리에게 내린 지령이 무엇인가?

김시현 : (사방을 살피다가) 매일신보,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총독부! 그 곳을 폭파시켜야 합니다.

김지섭 :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네.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지.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무대 위로 슬쩍 올라와서 듣고 있다. 네 사람은 누군가가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의논을 하며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중에 었든던 누군가의 옆을 지나지만 눈치 채지 못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던 황옥이 었든던 사람 앞에서 멈춘다.

황옥 : (세 사람이 간 쪽을 계속 주시하며) 똑똑히 들었느냐.

김재진 : 네.

황옥 : 난 저이들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내가 빠져나온다면 저이들이 의심을 할 것이니 네가 가서 일본에게 알리거라.

김재진 : 일본 순사들이 경부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스럽게) 그 날 경부님까지 체포한다면 어찌시렵니까?

황옥 : 괜찮다. 공을 세우려 밀정을 자초했으니 끝까지 해내야지.

(앞서 간 세 사람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어리석은 놈들, 내가 일제의 밀정인 줄도 모르고 나를 총독부 파괴 수행 요원 중 한 사람으로 삼다니.

(김재진을 보고) 넌 어서 가서 순사들에게 알리거라. 서두르거라!

김재진 : 네! 알겠습니다, 경부님.

황옥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잠시 후 일본 순사들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온다. 김재진이 순사들을 붙잡는다.

김재진 : (지나가는 순사를 붙잡으며) 순사님들! 순사님들! 잠시만 멈춰보십시오! 전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순사가 뒤를 돌아본다. 김재진에게 팔을 붙잡힌 순사는 불결하다는 듯 표정을 찡그린다.

순사1 : (불쾌하다는 듯) 이것 놓거라! (김재진이 당황하여 팔을 놓으면 따귀를 때리고) 어디 감히 조센징 놈이 나의 팔을 잡는 것이냐?

순사가 더 때리려 하지만 옆의 순사들이 말린다. 한 순사가 김재진에게 말을 건다.

순사2 : (귀찮다는 듯) 무슨 일인데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김재진 : (굽신거리며) 죄송합니다, 순사 어르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순사1 : (버럭 거리며) 들어보고 별 일 아니면 각오하거라! (옆에 있던 각목을 들고) 내가 이 몽둥이로 널 흠씬 패 줄것이다.

김재진 : (굽실거리며) 일단 들어보십시오. 잠시 귀 좀...

순사3이 불쾌하고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김재진에게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인다. 김재진이 말을 하자 순사의 표정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야비한 표정을 짓는다. 김재진이 말을 끝내고 멀어지면 순사1의 몽둥이를 뺏아서 김재진에게 겨눈다.

순사3 : 그게 분명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인 것이냐!

김재진 : (몽둥이를 보고 겁을 내며) 누구 앞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순사3 : (비열한 웃음을 짓고) 내가 너에게 들은 말을 위에 고하겠다. 그 일을 막는다면 너에게 큰 보상이 뒤따를 것이니 돌아가서 기다리거라.

김재진이 순사들에게 여러 번 굽실거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나머지 순사들은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순사3에게 모여든다. 순사들은 이야기를 듣고 놀란다. 저들끼리 웃다가 이야기를 알리려는 듯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김원봉, 김지섭, 김시현, 황옥 등 6명의 남자가 상자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온다.
이 때 남자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온다.

남자3 : (숨이 찬 듯) 큰일 났습니다. 윤병구가 조선 총독부의 판사 백윤희에게 군자금
을 청하러 백윤희 집에 갔다가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합니
다.

모두들 놀란다.

남자1 : (짜증내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어서 거사를 치러야 합니
다.

김지섭 : (걱정된다는 듯 턱을 만지며) 윤병구의 일은 안타까우나 이 일은 너무 큰일이
니 선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네.

남자2 : (안심시키려는 듯) 사전조사를 많이 했었으니 경찰들이 눈치만 채지 않았다면
차질 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김시현 :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김원봉 :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겠소.

김시현과 남자1, 2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이 때, 순사들이
무대로 들어와서 이들을 둘러싼다. 순사들의 옆에는 김재진이 있다.

순사 대장 : 너희들을 폭파모의 혐의로 체포한다. (순사들에게) 무엇 하느냐. 이놈들을
끌고 가라!

순사들 : 네!

김시현과 남자 1, 2는 당황하며 순사들에게 붙잡힌다. 무대 한 구석에서 김원봉,
김지섭, 장건상 등이 올라오다가 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
고 있다.

김시현 : (순사들에게 잡힌 채 발버둥을 치며) 이것 놓아라, 이놈들!

(하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경성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었거늘…!

김시현의 무리가 끌려 나가다가 김지섭 무리를 보고 멈칫 선다. 김시현은 김원봉을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순사들에게 끌려 나간다. 김지섭 무리가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김지섭 : (망연자실하게) 아... 이 일이 물거품이 되다니!!!

김원봉 : (김지섭을 끌며) 추장 형님, 거사가 실패한 것은 애통한 일이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남자3 : 우리라도 몸을 피해 후사를 기약해야 합니다.

김지섭 무리가 무대를 나간다.

(1923년 9월 1일 동경)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넘어진다. 하나 둘, 넘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땅 전체가 흔들린다.(카메라를 흔들) 사람들의 비명이 거리에 가득하다.

일본 내무성 장관이 의자에 앉아 턱을 만지며 인상을 찡그리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때 관리 두 명이 뛰어들어 와서 고개를 숙인다.

일본 관리1 : 지금 길거리에 신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가미 만을 중심으로 일어난 간토대지진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합니다.

일본 관리2 : 지진이 일어난 때가 점심시간이 임박한 시간이라 불을 사용하고 있던 가정집이 많아서 화재 피해가 더욱 큼니다.

내무성 장관 : (벌컥 성을 내며) 안 그래도 고심하고 있으니 너희까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일본 관리가 조용히 있으면 내무성 장관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짓고 소리를 친다.

내무성 장관 : (눈을 빛내며) 그래! 바로 그것이다!

일본 관리1 : 무슨 묘책이 떠오르셨습니까?

내무성 장관 :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흥흥한 민심의 방향을 정부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일본관리2 : (일본 관리1과 마주 보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무성 장관 : (성을 내며) 이런 멍청한 것들! 일본 신민들이 정부가 아닌 조선인들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도록 유언비어를 퍼뜨리자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이제야 알았다는 듯 입을 벌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내무성 장관 : (일본 관리1에게) 넌 당장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다는 뜻을 알리거라.

(일본 관리2에게) 넌 내가 신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라.

(허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신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야겠구나. 건방진 조선정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고 말이야. (큰소리로 웃는다.)

일본 관리들이 무대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무대 한편에 조희대 같은 것이 마련되고 내무성 장관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쪽으로 걸어간다. 그 뒤를 경찰들이 뒤따르고 그 앞에서는 점점 일본인들이 모인다.

내무성 장관 : (가슴 아프다는 듯) 신성한 대 일본제국의 신민 여러분. 하늘이 우리 제국의 기세를 시기하여 재난을 내렸습니다.

일본인1 : (손가락질을 하며) 잔말 말고 이 시국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오! 여기 고통 받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소?

일본인들 : 어서 대책을 내놓으시오!

일본 경찰들이 소리친다.

일본 경찰들 : (칼을 땅에 치며) 모두들 조용!

일본인들이 조용해진다. 내무성 장관이 말을 계속 잇는다.

내무성 장관 : 대책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경찰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신민 여러분께 전할 말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내무성 장관은 말을 마치고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는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그 뒤를 경찰들이 뒤따른다. 남겨진 일본인들은 웅성거린다.

일본인1 : (혼란스럽다는 듯) 방금 저 사람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본인2 : (두 주먹을 꼭 쥐고 분을 삭이려 애쓰며) 이런 시국에 망할 조센징들이 우리 제국을 또 한 번 위협에 빠뜨리려 한다는 말이지 뭐야!

모여 있던 일본인들은 모두들 놀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친다.

일본인3 :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을 죽이려 하고 우물 안에 독약을 넣으려 한답니다!

일본인4 :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려 한다!

일본인들 :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 조선인을 색출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일본인들은 함성을 지르고 모두들 무대 아래로 몰려간다. 일본인들이 모두 나간 뒤에 무대 위로 조선인 복장을 한 이들과 몇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그 뒤를 무기를 든 일본인 무리가 쫓는다.

일본인2 : (무기로 조선인 복장을 한 사람을 내려치며) 조센징은 죽어라!

무기에 맞은 조선인은 피를 토하고 쓰러진다. 일본인들의 함성이 더욱 높아진다. 흥분한 일본인들은 조선인 복장을 한 사람 몇을 더 죽이고 양장을 한 남자에게 다가간다. 그리고는 「十五圓五十錢」이라고 쓰인 종이를 내민다.

일본인5 : 조센징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구나! 이것을 읽어보아라!

조선인 : (버벅거리며) じゅう…ごえんご…じっせん.

일본인1 : 발음(撥音)이 되지 않는구나!

일본인들 : 조센징이다! 죽여라!!!!!!!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둘러싸고 밟고 무기로 내려찍는다. 일본 경찰 3명이 호루라기를 불며 들어온다.

일본 경찰1 :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인데 소란을 피우는 게요!

일본인들이 비켜섰을 때는 이미 조선인의 주변에 피가 낭자하고 조선인은 죽어 있었다.

일본인3 : (흥분한 채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폭도인 조센징을 처단한 것일 뿐이오.

(피 묻은 무기를 쓰다듬으며) 비키시오! 아직 많이 처리할 조센징들이 많은 것 같으니.

일본 경찰2 : 당신들의 도가 지나치니 정부에서 연행하라 명하셨소! 같이 가줘야겠소.

일본인4 : 폭도들을 처단한 것일 뿐인데 왜 연행되어야 한단 말시오!

일본 경찰3 : (넉살 좋게 달래듯) 사실 형식상의 조치에 불과하니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오.

조금은 초췌해지고 수염이 긴 모습의 김지섭이 무대로 나온다. 김원봉과 윤자영이 헬레벌떡 뒤를 따라 무대로 나온다.

김지섭 : (힘없이) 약산,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인가? 난 경성에서의 거사가 실패한 후로 모든 일이 절망적이네.

김원봉 : (김지섭의 어깨를 토닥이며) 추장 형님,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그것보다, 이 신문을 보십시오.

김원봉은 들고 있던 신문을 김지섭에게 보여준다. 김지섭은 신문 기사를 읽어가다가 눈이 커다래진다. 그리고 신문을 쥐고 있던 손을 꼭 쥐다.

김지섭 : (울분을 토하며) 아니, 우리 민족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천재지변인 지진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겐가!!

김원봉 : 6000명이 넘는 우리민족이 학살당했다 합니다. 지금 독립 운동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민족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살당한 동포의 원혼을 달래줘야 합니다.

김원봉의 팔을 잡고 김지섭이 묻는다.

김지섭 :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번에는 내 한 목숨을 바쳐 성공하고 말 것 이야.

윤자영 : 내년 1월에... 동경에서 일본의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을 비롯한 일본 고관들이 모이는 제국의회가 열린다 합니다.

김지섭 : 그 곳이군. 내가 묻힐 곳이... 군자금 확보마저 이루어 내지 못했으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번 일에 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네. 이 몸뚱이가 무에 그리 아깝겠는가. 내가 일본말에 능숙하고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으니 나 혼자 일본에 잠입하여 일왕을 폭살하겠네. 그리고 내게 3년 전에 최윤동에게서 받은 폭탄 3개가 있네.

김원봉 : (걱정스럽게) 허나 폭탄을 지니고 일본에 잠입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부인 동경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 일제주구를 처단하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윤자영 : 네, 추장 혼자서 일본에 잠입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불러냈습니다.

윤자영이 잠시 무대 밖으로 나갔다가 두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다.

윤자영 : 이 두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좌가현 출신으로 일찍이 동경에서 신문기자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상해에 거주하면서 소련 공산당과 상해 공산당의 연락을 담당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일본 장기현 출신으로 상해에서 이발업을 하던 소림개라고 합니다.

김지섭은 미간을 찌푸리며 두 사람을 경계한다. 윤자영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소개한다.

윤자영 : 이중 소림개의 형인 소림간일은 삼정물산회사의 석탄배인 천성환의 선원이온데 그 배가 지금 상해의 대안인 포동에 정박 중이라 합니다.

소림개 : (상황과악을 하지 못하고 눈치 없게) 무슨 일로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외항 선원들이 흔히 밀수와 밀항을 주선하고 있으니 그들과 교섭을 한다면 도쿄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김원봉 : (김지섭에게) 형님, 그 배에 승선하십시오. (봉투를 주며) 형님을 결사대원으로 임명하며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 챙겼습니다.

김지섭이 돈 봉투를 받는다.

윤자영 : 그럼 저와 친구들은 추장께서 승선하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윤자영과 그 친구들이 무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김지섭이 윤자영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윤자영이 친구들에게 손짓을 하여 먼저 가르는 표시를 한다. 친구들이 모두 나간 뒤에 김지섭이 윤자영에게 말한다.

김지섭 : (소리를 죽이려 하지만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며) 아까 무엇이랴 하였는가? 일본 출신이라니! 일제를 처단하러 가면서 일본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윤자영 : (김지섭에게 잡힌 옷깃을 쓸어내리며) 추장, 지금 그런 일이 대수입니까. 일단 동경까지 안전하게 가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잘 말할 테니 선생은 걱정 마시고 거사 준비를 하십시오.

김지섭 :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 거사를 위해서 비록 일시적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겠네만...

윤자영 : 그럼 됐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김지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무대를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되돌아와서 김원봉을 안는다.

김지섭 : 내 기필코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네.

다시 보자는 말은 하지 못하겠네. 거사를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네.

(울먹이며) 조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이지만... 내 이 한 몸 바칠 테니 자네는 뒷일을 맡아 조국 광영을 되찾아 주게

김원봉이 김지섭과 다시 포옹한다. 김지섭은 김원봉을 안은 팔을 풀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다.

김지섭과 윤자영의 뒤에 상자들이 몇 개 쌓여 있다. 김지섭이 들고 있는 행낭 속에는 폭탄 3개가 들어있다.

윤자영 : (김지섭을 가리키며) 이 분은 코카인과 아편을 밀수입하기 위해 일본에 가실 것이네.

(소림개를 보며) 잘 부탁하네. 나의 절친한 형님이시니.

(김지섭에게) 일본 관헌이 수상히 여길 경우를 대비하여 가명의 명함 30장을 챙겼습니다. 아까의 무례는... 너무 흥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또한 부디 성공해주십시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자영은 김지섭에게 고개를 까딱 숙인다. 김지섭은 윤자영의 팔을 두 번 두드리 주고 믿으라는 듯 눈빛을 보낸다. 윤자영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면 소림개가 김지섭에게 말을 건다.

소림개 : (김지섭을 보며 소림간일을 가리키며) 저의 형인 선원 승무원 소림간일이웁고 이곳은 창고입니다. 도쿄까지 가는 데는 열흘 가량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 저희 들은 물러가겠습니다. 소야(윤자영의 호)의 형님이시면 저의 형님과도 같으니 불편한 일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지섭은 이들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려는 듯 뒤돌아 서있다. 소림개 무리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김지섭 : 이번 일은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아... (감상에 젖어 시를 읊조린다.)

‘표연히 이 한 몸이 천리 길 떠나갈 때
배 안에는 모두 원수이니 벗할 이 님 있는가.
기구한 나라 앞길 촉보다도 험난하고
분통한 겨레 마음 진나란들 더할쏘냐.
오늘날 몸 숨기고 바다 건너는 사람은
그 몇 해를 참으면서 와신상담을 하였던가.
이미 걸은 이 걸음은 평생의 뜻이기에
다시는 고향을 향해 돌아갈 길 묻지 않으리.’

김지섭이 눈이 부시는 듯 손으로 그들을 만들며 무대에 들어선다. 뒤에 오는 소림개 무리들을 모른 척하고 계속 앞서나가서 무대 중앙에 선다. 뒤에 있던 소림개 무리들이 숙덕거린다.

선원1 : (나르던 상자를 바닥에 놓고) 저 조선인은 열흘 동안 하루 한번 내지 두 번 주는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배 밑 창고에서 지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탈진상태인 듯 하더니 일본 땅에 내리자마자 저리 펄펄 날다니...

선원2 : 코카인과 아편을 밀수입할 생각에 들뜨는 가보네. 헌데 저 조선인은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소림개가 김지섭에게 다가간다.

김지섭 : (검연쩍은 듯 헛기침을 하고) 내가 어떤 이에게 3원을 빌려 주고 배에서 심부름꾼을 부리느라 여비를 다 썼네. 내 모든 것을 전당포에 맡겼으나 그래도 부족하네. 면구하지만 자네들과 며칠만 함께 투숙하면 아니 되겠는가?

소림개 :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 있겠습니다. 불 일 보고 오십시오.

김지섭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지도를 파는 상인을 보고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동경 시의 지도를 산다.

김지섭 : (지도를 펼쳐보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겠지. 내가 일본 놈들을 모두 처단할 것이다.

행상을 들고 무대로 들어서던 김지섭은 옆에 떨어진 신문을 주워 읽게 되고 절망한다.

김지섭 : (신문을 구기며) 의회가 휴회한다니! 게다가 무기한 연기... 여비도 다 떨어지고 폭발물을 지니고 있다가 검문이라도 받게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침략의 아성인 왕궁에 투탄할 수밖에 없구나.

(고개를 돌리고) 차라리 잘된 일이다. 왕궁에 폭탄을 던져 성공한다면 제국의회 의 거사보다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호소할 수도 있어!

김지섭이 조금 걸으면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 그 속에는 경찰들도 섞여 있다. 김지섭이 무대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펴본다.

김지섭 : (무언가를 발견한 듯) 왕궁과 가장 가까운 다리인 이종교가 가장 좋겠구나.

일본경관 : 이제 밤이 되어 구경할 수 없으므로 속히 돌아들 가시오!

거리의 일본인들이 모두들 들어가고 김지섭만이 남아있다. 이종교 입구에 서 있던 경찰이 다가온다.

일본경찰1 : (턱으로 김지섭을 가리키며) 당신은 누구요! 어서 돌아가시오!

일본경찰2 : 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무엇을 살피는 게야? (다른 경찰들에게) 의심스러우니 이 자를 붙들어라!

김지섭이 이 말을 듣고 재빨리 폭탄 한 개를 던지지만 불발이 된다. 김지섭이 폭탄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일본경찰이 분주해진다. 김지섭이 한 경찰을 밀치고 중앙으로 나아간다. 이종교 옆의 근위병이 김지섭을 붙들었고 그 전에 재빨리 폭탄 두 개를 던진다. 하지만 약한 폭음만 내고 불발이 된다.

김지섭 : (억울하다는 듯 하늘을 보고) 어째서 불발인 것이냐!!!!!!!!!!!! 이것 놓아라, 이놈들아!!!!!!!!!!

(울부짖으며) 미안하오, 동지들이여. 미안하오, 대한민국 이천만 동포여!!!!!!!!!!

내가 못 다한 일을 당신들에게 맡기겠소…!

(자신을 붙잡은 일본군들에게 호령하며) 이놈들아. 자국을 위해 싸운 우리들을 잡아갈 테면 잡아가 보거라! 과연 우리들을 무슨 죄목으로 끌고 갈 것이냐! 누가 죄인인 것이냐!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힌 김지섭은 무대 밖으로 끌려 나간다. 잠시 후 일본인들이 무대 위로 모여든다. 저마다 신문을 들고 속닥거린다.

일본인1 : 대 일본제국의 신성한 왕궁에 폭탄을 던지다니… 조센징과는 정말로 상종할 수가 없군 그래!

일본인2 : (고개를 흔들며 감탄하듯) 허나 그 용기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인3 : 하긴… 내가 대 일본제국의 신민만 아니었더라면 그 조선인의 용기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일본인4 : (신문을 읽으며) 조선인 김지섭의 폭탄투척에 당황한 사법성에서는 검사총장과 예심판사, 검사 등을 경찰서에 보내어 엄중한 취조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신내각을 조직하고 있던 청포는 내각 조직을 중지하였고 근신하던 산본내각은 긴급 각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취재반과 경찰 헌병들의 계엄차량들이 도쿄의 전 시가지를 누비고 있다…

일본인2 :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아!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경시총감, 경무부장이 파면 당했다 하더군요.

일본인3 : 얼마 후에 그 조선인에 대한 재판이 있을 거라 합니다.

이 때 일본 경찰들이 삼엄하게 무대로 올라오고 대화를 하던 일본인들은 도망가듯이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무대 양 편에는 배심원이 다섯 명씩 서있다. 재판관 3명이 들어온다. 사람들이 웅성댄다. 무대 중앙에는 이곳저곳 상처가 난 김지섭이 초췌하지만 눈을 빛내며 서있다.

재판장 : (의사봉을 두드리며) 조용, 조용! (조금 있다가) 양측 변호인들은 나와서 최종 변론을 하시오.

일본 정부 측의 검사가 김지섭의 옆쪽으로 나와서 말을 한다.

검사 : 피고 김지섭은 다이쇼 13년 1월 3일, 대 일본제국의 궁성의 이종교에 폭탄을 투척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니 검사 측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뒤로 들어가면 뒤에 있던 일본인이 나온다.

변호사 후세 다쓰지 : 피고 김지섭은 조선 민중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여 이종교에 폭탄을 투척한 죄를 지었으나 폭탄은 불발되었습니다. 불능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무죄석방을 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조선인이라는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변호사가 이야기를 끝내고 뒤로 들어간다.

재판장 : 피고 김지섭,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김지섭 : (숙이고 있던 고개를 뺏뺏이 들고 재판장을 호령하며) 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허나 내게 한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열흘 간 배의 습기를 먹은 폭탄이 터지

지 않아 일본인을 처단치 못한 것이다. 이번 내가 취한 행동은 침략정치에 도취되고 있는 일본 국민을 각성시키고 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배심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댄다. 김지섭의 말이 계속 된다.

김지섭 : (무대 이곳저곳을 보며 비통하게) 이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여! 나는 일본에 속지 않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는 큰 이상에서 이 일을 감행하였으나 일본에게 붙잡혔소. 남은 당신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선언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항쟁해 조국 광영을 되찾아 주시오!

(일본인들에게) 우리 한국인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하는 가운데 나 홀로 적국에 들어와 사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진실로 넘치는 영광이다. 비록 너희가 내린 판결을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받아는 들이겠으나 너희의 무자비한 정책에 맞선 나는 죄가 없다.

김지섭의 말이 끝나고 재판장이 술렁인다. 재판관들은 저들끼리 속닥대고 이내 결정을 내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판결을 내린다.

재판장 : 피고 김지섭! 김지섭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김지섭은 이종교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을 혼란에 빠뜨린 중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결을 내리고 재판관들은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김지섭을 끌고 들어왔던 경찰들이 김지섭에게 다가온다. 김지섭은 경찰들에게 팔을 잡힌 채로 허탈한 듯, 크게 웃으며 무대 아래로 내려간다.

죄수복을 입은 김지섭이 무대 한 가운데 양반 다리를 하고 눈을 감고 앉아있다. 이 때 교도관이 들어와 말한다.

교도관 : 2106! 면회신청!

면회를 알린 교도관은 면회를 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 온 동료와 함께 무대

구석으로 가서 김지섭을 먼 곳에서 주시하고 있다. 양장을 한 조선인이 김지섭의 앞에 서면 김지섭은 이들 중 한 명의 손을 잡는다.

청년1 : (잡은 손을 흔들며) 선생님! 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기운을 차리 시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김지섭 : (미안한 표정으로) 매번 이리 찾아와줘서 날 살려주니 내가 감격스러우면서도 한 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밖에 없네...

청년2 : 그런 말씀 마세요. 추강 선생께서 서울 형무소로 이송된다면 저희보다 더 많은 동포들이 선생을 찾을 텐데...

청년3 : (구석의 일본 교도관을 야리며) 선생을 서울로 이송시켜 주지 않는 일본의 의도가 뻔하지 않은가! 대 일본제국이라 떠들던 것들이 선생을 찾는 이들이 많을까 노심초사하며 일본에 묶어두고 있는 꼬라지라니...

모두들 아무 말 없이 있다. 청년1이 말을 꺼낸다.

청년1 : 20년 형으로나마 감형되셨으니 자꾸 단식투쟁한다 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드십시오. 선생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일본만 좋아할 것입니다.

청년2 :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아! 선생님, 지금 저자에는 선생님께서 북해도 망고 형무소로 이감되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실입니까?

김지섭 : 일본 놈들이 저들 마음대로 하는 일을 낸들 어찌 알겠는가.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내 몸이 좋지 않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갈 가게.

청년1 : (김지섭을 향해 한 발 다가가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까?

청년2 : (청년1을 말리며) 조금 피곤하신 듯 하니 이만 가지. (김지섭을 보고) 선생님, 안색이 좋지 않으시니 쉬십시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찾아 뵈 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김지섭 : (뒤돌아가려는 청년들을 부르며) 이보게! 열심히 일본에 맞서서 조국을 되찾아 주시게. 내가 지켜보고 있겠네.

청년들은 갑자기 이상하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청년들과 경찰이 무대 밖으로 나가고 김지섭이 그 자리에 털썩 앉는다. 김지섭이 격하게 기침을 한다.

김지섭 : (청년들이 나간 길을 보며 혼잣말로) 슬프지만... 자네들이 다음에 찾아올 때까지 내 몸이 견디지 못할 듯하네...

(기력 없이 주춤주춤 일어서 두 팔을 벌리고 객석 쪽으로) 내 마지막 길에 우리의 겨레에게 나의 말을 남기노니...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려오는 날, 나는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만세를 소리 높여 울부짖으리라... 대한 독립만세!

대한독립 만세…!

김지섭이 주춤하다가 바닥에 쓰러진다.